

## #6 음식점

#가령과 규빈은 자리에 앉는다.

#할머니가 밑반찬을 가지고 다가온다.

가령 (매뉴판을 보지않는다)할머니~ 저희 여기서 제일 잘나가는 음식 주시겠어요?  
규빈 네? 음식을 그렇게 시키면 어떡해요  
할머니 (가령과 규빈을 쳐다본다)  
가령 아니에요 그냥 먹어요 이게 낭만이죠  
규빈 저는 낭만 찾으러 온게 아니고 일하러 왔어요  
가령 할머니 그냥 그렇게 주세요  
할머니 그러

#할머니가 주방쪽으로 돌아간다

#대화를 시작하며) 가령과 규빈은 배고픈 탓에 반찬을 집어 먹기 시작한다.

규빈 진짜 어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가령 몰라요 일단 밥부터 먹어요 밥앞에 탄소리하면 혼나요  
가령 아 술이나 한 잔 하고 싶다~ (혼잣말 비스무리)  
규빈 안경을 치켜올리며 근무시간 중에 알코올은 안되죠!! 집중력을 흐트러뜨린  
답니다 (해맑)

#대화중) 가령과 규빈은 3개 나온 목을 하나씩 집어 먹는다(1개 남음)

가령 그냥 말 해보는 거죠 (남은 1개의 목을 집어먹으며)  
규빈 (눈이 뚱그래지며) 할머니 (빈 그릇을 주시하며) 저희 목 하나 더 주세요  
가령 ?  
규빈 ㅎㅎ 서울에서는 이거 귀하거든요

#할머니가 목을 가져다 준다

규빈 근데 3개중에 2개를 다 드셔서요 이번엔 제가 2개 먹을게요!  
(미운데 알미운 웃음)  
가령 (뚱뚱은 표정) 다 드세요

#계속 밑반찬을 먹고 있다.

#할머니가 냉채족발을 가지고 온다.

#규빈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으려한다

#가령은 배고파서 무작정 젓가락을 들이밀다가 뺨다

#규빈은 사진을 다 찍은 듯해서 가령은 다시 젓가락을 냉채족발로 들이민다.

규빈 (젓가락을 막으며) 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가령씨  
가령 (약간 놀라며) 뭐야 냉채족발 처음봐요?  
규빈 네 처음봐요 서울에서는 본 적 없어요  
가령 아 그래요~(놀라지 않으며 그냥 다시 먹는다.)

*#규빈은 눈으로는 개수를 세고 있다 손가락도 조금씩 까딱거리면서  
#규빈은 음식의 개수가 홀수인 것을 확인한다.  
#음식을 또 나누기 위해 주인 할머니에게 가위를 달라고 한다.*

규빈 할머니 가위좀 주세요  
할머니 (가위를 건네며) 가위는 왜 필요해  
가령 몰라요,, 누가 자꾸 나눠먹재  
규빈 (가위를 받고 음식을 입에 가득 머금고 웅얼거린다) 정확히 나눠먹어야죠  
할머니 총각 웰케 깐깐해~  
가령 서울에서 왔대요  
할머니 하긴 서울에서는 이런거 먹기 힘들지  
가령 부산에서야 흔하죠  
할머니 그래 여기는 애들도 와서 먹고 내 동년배도여기 와서 먹어  
가령 맞아요 호불호가 적은거 같아요 맵지도 않고  
할머니 맵게 해달라하면 다 맵게 해주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야 여기 단  
체로도 많이 와서 먹어 (말하고 퇴장)  
가령 (별생각 없이) 아 네 그래요